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5월 8일(주일) 제1392호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

“어버이은혜 감사합니다”

5월 7~8일 어버이주일, 카네이션 전달

5월 7일(토)과 8일(일)은 어버이주일이다. 어버이의 은혜와 존경을 되새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다.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도 어버이주일을 맞아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다. 토요일, 일요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준다.

5월 14일(토)과 15일(주일)에는 사회선교본부 제이홉사역팀(임양위탁 커뮤니티)에서 임양위탁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사역팀과 임양기관을 홍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서빙고, 양재, 도곡,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인천, 강동온누리교회 예배당 예배에서는 임양가족들(제이홉)의 간증도 이어진다.

문의: 02-3215-343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다음세대 위한 ‘달려라풍당’ 시작!

6월 6일까지 운동한 만큼
‘풍당주일학교’ 후원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풍당’이 시작됐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거리 측정이 가능한 운동을 하고, 그 거리만큼 ‘풍당주일학교’를 후원하면 된다.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주일학교 예배 운영을 돕는 ‘풍당주일학교’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풍당주일학교는 전국 200개 교회에 주일학교 운영을 위한 장비와 콘텐츠를 지원 하는 프로젝트다.

아직 ‘달려라풍당’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5월 22일까지 ‘네이버 폼’과 기부플랫폼 ‘체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부플랫폼 ‘체리’ 앱 회원가입을 한 다음 캠페인 참가신청을 하면 신청접수부터 운동별 기록측정, 랭킹 확인, 인증샷 공유까지 할 수 있다.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은 5월 7일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5월 14일 강동온누리교회, 양지온누리교회, 5월 21일 수원온누리교회, 평택온누리교회, 부천온누리교회, 5월 28일 부천온누리교회, 인천온누리교회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달려라풍당’ 캠페인 목표는 참가자 5,000명, 거리 170,000km, 모금액 3억 원이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땅끝에 세우는 더멋진세상!

5월 7일과 8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식’
5월 24일 대학청년부와 함께 몰도바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5월 7일(토)과 8일(일) ‘땅끝에 세우는 더멋진세상’을 주제로 정기후원 약정식을 개최한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식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후원으로 동참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NGO 더멋진세상 안내데스크에서는 임직원들과 실행위원들이 성도들의 정기후원 약정을 돕고,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소개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산하 UN

ECOSOC 등록 국제개발 NGO다.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인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전 세계 25개국에서 ‘더멋진마을조성사업’, ‘다음세대희망심기’, ‘취약계층생명살리기’, ‘긴급구호 및 난민 사역’ 등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몰도바에서 난민 임시수용소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몰도바 루마니아 등지 난민 임시수용소 5개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5월 24일(화)에는 NGO 더

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함께 몰도바로 긴급구호를 간다.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긴급구호팀은 몰도바 임시수용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 자녀 캠프 등을 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이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후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4면).

문의: 02-2271-2248

후원: 우리은행 1005-702-002535 [예금주: (사)더멋진세상]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긴급 중보기도 경과보고

“지효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함께 중보기도해 주셨던 파워웨이브 김지효 학생 아 빠입니다. 지효는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5월 6일 일반병실로 올라갔 습니다. 정상 수치의 66배나 안 좋았던 염증 수치와 급격히 떨어지는 심장 기능으로 인해 인공심폐 보조장치(에크모)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4월 29일만 해도 지효는 생사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 다. 지효의 병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다발성 염증 질환’으로 한국에 보고된 환자 중 20번째이며 그중에서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사례였 습니다.

정말 다급했던 4월 27일과 28일 공동체 목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 들께 긴급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였고 금요일 아침에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던 심장의 기능이 기적같이 더

떨어지지 않고 버텨 주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 놀라운 만큼 기도의 들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예배 때 담임목사님과 전교인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효의 상태는 의료진들도 의아해할 정도로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약효가 나타난다는 약은 투약하자마자 지효의 몸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안 좋았던 수치들이 50%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의 지난 5월 4일 아침에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고통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자던 아이는 이제 몇 시간씩 꼭 잡니다. 4월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물 한 모금 먹기 힘들어하던 아이는 이제 죽도 아닌 밥을 한 그릇 뚝딱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저희 가정은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갚지 못할 기도와 사랑의 빛을 켜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 위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지효 아빠 올림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역사 1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변천사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위성 국가들이 독립했을 때, 서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재등장에 놀라워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19세기 후반 통일된 이래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유럽에서 처음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기준으로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였고,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진 나라였다. 서유럽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한 부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즉, 우크라이나 역사를 독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를 같은 동슬라브족으로 묶고 이를 다시 러시아와 동일시하여 해석해왔다.

키이우 대공국(‘키이우’는 우크라이나식 명칭이며, ‘키예프’는 러시아식 명칭)은 882년 수도를 노브고로드에서 키이우로 옮기면서 형성된 동슬라브 민족 최초의 나라로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뿌리가 되었다. 그런데 몽골의 침략으로 ‘키이우’가 함락되고 동슬라브인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옮겨가자 키이우 대공국의 전통성까지 모스크바와 러시아가 가져갔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독립성을 잃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강대국 러시아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러시아의 위대한 극작가로 알려진 니콜라이 고골(우크라이나식 이름은 미콜라 호홀)도 사실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다. 그를 세상에 소개한 ‘다카니카 근교 농촌 야화’ 역시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서민들의 생활을 취재해서 쓴 소설이었다. 고골은 평생 철학과 문학, 역사에 관심을 두었는데 자신의 출신과 민족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개략적인 역사를 독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원전, 기원후, 루스 카간국

우크라이나에 사람이 살았던 최초의 기록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처음 등장한 민족은 ‘킴메르인’이었다. 그 이후 ‘스키타이인’이 등장해(기원전 7세기) 우크라이나 전역에 살게 되었다. 스키타이인은 이란계 유라시아 유목민으로 중부 유라시아 스텝 전반에 걸쳐서 거주하였다. 특히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서부 스키타이인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로인 비단길을 만들어 이 지역 문명 번영에 이바지하였다(기원전 4세기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그리스 아테네에 수출했는데 아테네 수입 곡물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기원전 2세기에는 ‘사르마타인’ (스키타이인과 동일한 이란계 민족)이 등장해 스키타이인을 몰아내고, 기원후 3세기까지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7세기 중반



독립광장의 독립기념비와 우크라이나 국기.

까지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불가르족이 잇달아 이 지역을 지배했으나 특별한 자취를 남기지지는 못한다.

‘루스 카간국’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반까지 성립된 루스 민족 최초의 국가로, 류리크 왕조와 키이우 대공국의 전신이었다. 이 시기의 루스 민족은 자신들만의 민족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지만, 루스 카간국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민족의 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으로 ‘카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카간은 몽골이나 투르크계 유목민이 주로 사용하던 군주 칭호로 이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기 전부터 이들에게 영향받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키이우 대공국(키예프 루스)

작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키이우 대공국에서 기원한 같은 민족이며 역사와 언어, 종교 등이 연결된 하나의 나라이므로 서로 독립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은 분열이며 민족적 재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푸틴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키이우 대공국의 성립과 이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키이우 대공국은 루스 카간국의 마지막 카간이자 류리크 왕조의 시조인 류리크의 후계자 올레그 베시가 노브고로드에서 드니프로강 근처의 키이우로 수도를 옮기면서 형성되었다. 그는 수도를 옮긴 이후 주변의 동슬라브 민족들을 정복하였고, 동로마 제국에 대한 원정을 나서기도 하였다. 이후 912년 올레그 베시가 사망하자 류리크의 아들인 이고리 류리코비치가 키이우 대공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올레그 베시의 동로마 제국 원정 정책을 이어받아 동로마 원정에 참여하였는데, 동로마와의 평화 협정 이후 돌아오는 길에 세금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 이때 이고리 류

리코비치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내인 올가가 아들을 대신해 키이우 대공국을 섭정 통치하였다. 그녀는 957년에 정교회로 개종해 루스 지역의 첫 번째 정교회 신자가 되었다.

이후 키이우 대공국은 국경 지대에 있던 동슬라브족과 발트족, 핀족 등의 여러 부족을 정복하며 성장하였다. 블라디미르 1세 때인 989년에는 정교회가 키이우 대공국의 정식 국교가 되었다. 키이우 대공국은 ‘현공’이라고 불리는 야로슬라프 1세(1016년~1054년) 때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는 키이우 대공국의 국력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크게 향상시켰다. 북쪽, 발트해의 이민족을 정복하고, 폴란드가 다스리던 할리치아를 탈환하였다. 또한 관습법을 정리해서 성문 법전을 만들고, 대규모 정교회 성당을 건축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흥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095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역의 중심이 불가강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넘어갔고, 키이우 대공국도 이에 따라 쇠퇴하며 여러 작은 공국으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1240년 킵차크 칸국의 침공으로 수도 키이우가 함락되면서 키이우 대공국은 멸망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는 할리치아와 볼히니아 두 공국이 키이우 대공국을 이어 설립되었으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의해 정복되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하여 러시아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리투아니아의 땅이 되었고, 키이우 대공국의 공국이었던 모스크바 공국은 살아남아 러시아 제국으로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키이우 대공국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당시 모스크바 공국은 키이우 대공국의 주류와는 민족도 언어도 다르고, 1세기가 되어서야 슬라브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모스크바는 키이우 대공국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키이우 대공국이 다스리는 비슬라브 민족 연합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키이우 대공국에 이어 세워진 할

리치아와 볼히니아 두 공국이 비록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그들이 키이우 대공국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이어갔다고 보았다.

이러한 키이우 대공국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에 따라 러시아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푸틴은 자신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피 흘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합쳐진 복합 군주제 국가로,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와 인구를 지닌 국가 중 하나였다. 이 연방은 할리치아와 볼히니아 두 공국의 멸망 이후 17세기 중반 코자크가 나타나기 전까지 300년 간 우크라이나의 중심세력이었다. 비록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인에 의한 중심세력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인만의 문화와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중 리투아니아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들어왔다. 그런데 승전국 로마가 패전국 마케도니아 왕국의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승전국인 원나라 안에서 고려 문화가 퍼져나간 것처럼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였으나 정착 리투아니아 안에서는 슬라브 문화가 퍼져나갔다.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는 처음에는 이교도였으나 나중에는 귀족들이 정교회를 받아들였고, 당시 우크라이나의 언어였던 루스 언어까지 받아들여 리투아니아의 공용어가 되었다.

리투아니아 다음으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는데, 폴란드의 영향은 지금도 남아있다. 할리치나 지방(현 우크라이나 서부)의 경우 오스크리아-헝가리 제국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 흡수되기 전까지 폴란드 지배 아래에 있었다. 독실한 가톨릭 국가였던 폴란드는 정교회 대신 가톨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포교에 애를 썼고, 우크라이나 귀족들은 신분 상승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를 선택하였다<계속>.

/ 전은표 선교사(카이로스 동원디렉터)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통로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하나은행 174-910024-87105
(예금주: 우크라이나대사관)
· 기아대책: 02-544-9544
· 대한적십자: 1577-8179
· NGO 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8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예금주: (사)더멋진세상)

*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한국선교KMQ에서 발행한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책자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룻기는 나옴이라는 여인의 상처가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가 배경입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지도자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온전히 다스려지지 못했던 때입니다. 정치적인 암흑기입니다.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정은 이러한 시대적 고통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흉년보다 더 큰 상처를 겪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상처입니다. 모압에서 만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옴이 상처 속에 괴로워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나옴의 상처를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옴의 상처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옴이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더라도 하다면 모를까’”(11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옴이 말합니다.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15절).

이 말을 들은 룻이 시어머니 나옴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16~17절).

당시 모압과 유대 민족은 엄청난 적대관계였습니다. 나옴을 따른다는 것은 평생 혼자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옴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옴이 이방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옴은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씻어 보려고 며느리들에게 돌아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상처를 스스로 끌어안고 있으면 큰 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나라로 뛰어든 사건이 나옴의 상처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백과 결단대로 나옴을 섬겼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이사를 주우려 다녔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사를 주워 생활했습니다. 룻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됩니다. 농장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오면서 룻을 만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을 나옴에게 말하자 나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말라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기업’을 무른다, 영어로는 ‘리디머(redeemer)’라는 제도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가문의 경제적인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결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적인 도덕법에 속하는 제도였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옴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룻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룻과 나옴의 가정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한 남자의 선택이 룻기 전체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포함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그 결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를 열어가시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상처마저 축복이 되게 하고, 역사를 바꿉니다. 1장에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의 선택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나옴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끕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또 선택합니다.

4장에서는 또다시 보아스의 선택이 나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 친척이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옴의 상처를 씻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두 사람의 선택 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상처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옴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9~10절).

보아스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옴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에서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임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게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 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11~12절).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다시 써 보았습니다.

“보아스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했다네. 우리 장로들은 당신이 최고의 축복된 가정을 살기를 바라네. 장차 당신의 가정에서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길로 당신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기를 바라네. 때로 당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라헬과 레아의 불행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족속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때로는 정말 삶이 온통 뒤죽박죽되는 것 같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저질렀던 끔찍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고통 없이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 주시지 않지만 굽은 길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네. 라헬과 레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보아스와 룻, 당신들이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씻어주는 축복의 결혼이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처 입은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네. 우리의 꿈이 무참히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네.”

어느 날 보아스의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출생을 기다렸던 여인들이 모두 기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자들이 나옴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피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14~15절).

나옴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무 상처도 없고, 완벽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가정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과거의 족보를 중요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의 족보를 내다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상처가 축복으로 변화된 족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룻처럼 시어머니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선택, 보아스처럼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족보가 쓰입니다. 과거의 족보를 바라보면 상처와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족보를 내다보면 하나님이 모든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축복의 무게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상처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정기후원 약정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고,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비상 꿈꾸는 NGO 더멋진세상의 새로운 도전

NGO 더멋진세상이 5월 7일(토)과 8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땅끝에 세우는 더멋진세상’을 주제로 정기후원 약정 행사를 한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를 만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땅끝을 더멋진 세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에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했다. 다음은 김광동 장로와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가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데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재난당하고 강도 만난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는 국제 NGO입니다. 2010년 8월 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종교, 이념, 국가를 넘어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는 NGO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NGO 더멋진세상은 전세계 37개국에서 지역개발, 의료보건, 교육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은 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모아주시는 물질과 마음을 지구촌 소외된 이웃들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작은 헌신이 사막에 길을 내고, 꽃을 피우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서는 NGO 더멋진세상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간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가 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믿음은 알쏭달쏭한 숙제 같았습니다. 돌아켜 보면 믿음의 행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하면서 채우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설립할 당시만 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눌 것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중보기도와 후원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큰 사랑을 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큼니다. 그 자체가 저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NGO 더멋진세상이 섬기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곳은 아주 열악합니다. 지구촌 200여 나라 중에 수많은 빈곤국이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빈곤국 중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우리의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만, 땅끝에서 만난 주민 대부분 영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땅끝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입니다. 지진, 해일, 전쟁 등 가슴 아픈 재난이 지구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재난 현장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바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더 소외되고, 더 심각한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재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NGO 더멋진세상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사하라 사막에서 딸기 축제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지난달에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 딸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네갈 본나바마을은 NGO 더멋진세상이 오랜 기간 섬기고 있는 무슬림 마을입니다. 세네갈 본나바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나무 그늘에서 모랫바닥에 글씨를 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본나바마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사 43:18)는 말씀이 본나바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학교를 세우고, 길을 내고, 보건위생을 개선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고민하면서 딸기, 오이, 파프리카, 피망 등과 같은 다양한 시험 작물을 키웠습니다. 그중에서 딸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하 200m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 수도시설과 딸기 수경재배 시설을 공수했습니다. 그 누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딸기를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세네갈에서 가장 열악했던 본나바마을이 지금은 부러움을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본나바마을 딸기 축제에서 세네갈 행정부장관을 만났습니다. 행정부장관의 간곡한 초청으로 또 다른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세네갈 행정부장관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나바마을이 세네갈의 미래입니다. 본나바마을을 모델로 세네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세네갈에서는 NGO 더멋진세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네갈과 함께해주시시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사역도 한창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있기 전부터 NGO 더멋진세상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인근 마을을 개발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호수를 복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우크라이나 지부장인 선교사님이 난민이 되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루마니아에서 난민을 돌보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몰도바 지부에서는 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NGO 더멋진세상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봉헌해주신 비전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몰도바와 루마니아를 방문했습니다. 몰도바의 한 난민 임시수용소에서 누군가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고려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고려인들이 앞날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려인 19명의 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곧 한국에 도착해서 광주에 마련된 시설에서 적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고려인이 ‘140년 만에 조상의 땅에 돌아간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또 한 번 비상을 꿈꾼다고 들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말 그대로 NGO 색체가 강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35개 국가에서 사역했고, 10개 마을은 현지 이yang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개발을 하면서 선교의 열매가 정말 풍성했습니다. 마을이 변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지역개발 사역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의 돌과 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NGO 더멋진세상이 더욱 선교적인 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또 한 번 비상을 응원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후원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를 아끼면 지구촌 이웃들의 삶과 미래가 바뀝니다. 마을이 변하고, 예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동참해주십시오.”

어게인 마이 라이프(Again my life)

최고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칼럼니스트)

최근 한 유명 웹툰을 SBS에서 드라마로 제작했다. 제목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Again my life)’다. 이 드라마는 온갖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죽임을 당한 한 검사가 다

시 살아나 인생 2회차를 살아가는 이야기다. 주인공이 과거 학생 시절로 돌아가 잘못된 사건들을 되돌리는 과정을 긴박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그 드라마 첫 회를 보면서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범조계와 권력 사이의 카르텔이나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묻어둔 불효자의 회한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드라마 첫 회에 두 가지 장면이 대조를 이루었다. 새벽까지 공장에서 잔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의 부모님이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들어선 주인공 앞에 엄마가 차려놓은 마지막 밥상과 식탁 위에 놓인 응원 쪽지가 눈에 띈다. 주인공은 오염하고 만다. 주인공은 수험생 시절 너적하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이 묻는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곤 했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터로 나간 부모님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고 다시는 그 지켜준 잔소리조차 들을 수도, 정겨운 식탁도 마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과거로 회귀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집이었다. 가슴 두근거리며 문을 연 순간 부모님이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주인공은 벽찬 감격에 두 사람을 와락 끌어안았다. 평소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냉혈 아들의 돌변에 부모는 어리둥절했다.

주인공은 다시 주어진 삶에서 악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모님께 상냥하고 순종적인 아들로 변한 모습이다. 성경적이지 않은 설정이지만 여기에도 교훈이 있다.

불러봐도, 울려봐도 못 오실 부모님이니 누구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제쳐놓고 못다 한 효도를 하고 싶을 것이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았던 철없는 행동들과 술한 말대꾸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자신이 불효자였음을 뼈아픈 후회로 깨닫는다. 만일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어떤 잔소리에도 공손한 말씨로 응대드리고, 바쁘다는 핑계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 것이다.



가족 간 대화 빈도가 낮은 이유

충북 음성군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광하의 효’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광하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효성으로 부모님을 봉양해서 효자로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환으로 드러눕자 이광하는 어머니의 변을 맛보아 병세를 확인하며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국 병환을 낫게 했다고 한다.

정운영이라는 사람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과거로 출사하면 부모를 봉양하기 어렵다고 과거를 포기했다고 한다. 자녀와의 소통과 관심이 끊겨 노인 자살률과 고독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다.

스쿨잼 가족설문조사 따르면 가족 간 대화 빈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과 대화 어렵고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야기할 소재가 없다’든지, ‘부모님의 귀가가 늦어 대화할 시간이 없다’ 등의 답변 외에 ‘부모님과의 대화가 재미없어서 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많았다.

방송사 제작 시절 ‘김수민의 해피패밀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다. 호응도 높고 협찬도 많이 들어왔던 프로그램이다. 한번은 방송 30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여성에게 전화가 왔다. “그런 추악한 위선자를 뒷조사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느냐?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그 자매는 방송에 출연한 어느 유명한 장로님의 딸이었다. 그 장로님은 평생 교육 사업에 헌신해온 분이다. 그런데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충격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자매를 노엽게 했을까? 믿음 좋은 부모님의 어떤 행동이 딸한테 위선자라는 비난을 듣게 했을까? 마음이 씩씩했다. 처음에는 그 장로님 부부에게 잘못이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

들이 부모한테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자리면서 증오심으로 벽을 쌓는다. 미국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슈왈제네거는 어릴 적 형과 비교해 몸이 너무 가냘프다고 수시로 핀잔을 주는 아버지에게 대해 증오를 쌓아갔다.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도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서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대개 학교와 사회, 군대에서는 갖은 모욕과 폭력을 감수하면서도 인내한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랑으로 하는 잔소리는 지겨워하고, 분노와 증오를 쌓아간다. 반면 평생 피해만 준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자녀도 있다. 만일 우리 중에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모른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친부모뿐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과 가정, 교회 부흥을 이끌어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향한 반감과 무시의 시선 대신 진정한 경외심을 갖는 차원 높은 효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철저히 효를 강조!

한국인의 ‘효(孝)’ 정신은 국가와 가족을 지탱하는 도덕 규범의 기초라는 유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본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잘 공경해야 하는데 유교에서는 효를 종교화해서 초혼적 개념으로 반드시 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또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전통에서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왔다. 종갓집 며느리였던 친정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빚을 내 일년 내내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분개했다. 제사를 지내며 가족들이 아버지의 사업 성공을 비는 모습을 보며 왜 조상(귀신)한

테 앞날을 부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 조상제사도 지내지 않고, 부모공경도 모르는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제사 문제 때문에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철저히 효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인간계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부모공경 사상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임을 알 수 있다. 잠언서는 수도 없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 룻기에서도 홀로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봉양하는 이방인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 가문을 잇게 되었는지 좋은 사례로 남아 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여인으로 서, 어머니로서 희생적 삶을 살다 가신 그 일생이 필름처럼 떠올라 많이 울었다. 살아계시는 동안 다 보상해드리지 못한 자식으로서의 뼈저린 자책감이기도 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평생 제사를 지내며 고인에 대한 죄스러움을 속죄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부모님의 죽음은 자녀들에게 도저히 전달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을 말이다. 친정어머니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과 슬픔을 뒤로하고 천국의 위로와 보상을 받으셨을 것이라 믿는다.

부모님이 주님을 믿거나 혹은 믿고 돌아가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하는 ‘행복드림 콘서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 신청자마다 간절한 기도제목과 사연들이 담겨있다.

“친정어머니는 불교를 오랫동안 믿어서 스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조상 제사를 모시는 것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지극껏 보살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님은 어릴 적 고아로 자라서 마음이 많이 외롭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외롭지 않은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외 거주 중이라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고, 구원받아 교회에도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심정이 오죽 간절할까?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진정한 어게인 마이 라이프(Again my life)는 천국에서 실현될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실체

“초신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사탄, 마귀’라는 용어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천사의 반대말이 사단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지으셨다(골 1:16). 따라서 영적인 세계와 존재가 있고, 그 가운데 악한 영적인 실체도 존재한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적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악한 영의 존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 번째 죄의 사건에서부터 등장한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므로 온 인류를 죄 아래 갇히게 했던 첫 번째 죄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존재(뱀)의 개입으로 시작되었다(창 3:1). 여기에 등장한 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창 3:15). 아담과 하와를 꾀어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이 뱀은 과연 무엇인가? 이 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이 용은 ‘옛 뱀’ 이고 ‘사탄’ 이고 ‘마귀’ 다. 이 세 표현은 결국 동일한 한 존재의 다른 이름들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온 바로 그 뱀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인 것이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대적’을 의미한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사탄을 ‘사단’으로 표기했다. ‘사탄’은 구약에 총 27회 언급됐는데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여 죄로 인도한다.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게 했고(대상 21:1),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고발했다(욥 1:9).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참소하던 자’라고 한다(계 12:10). 욥기를 보면 놀랍게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살피기도 한다(욥 1:6~7).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등장한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신약성경에 쓰인 헬라어 ‘디아볼루’를 ‘마귀(魔鬼; 마귀마, 귀신 귀)’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다. 영어로는 ‘Devil’로 번역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용을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마귀는 헬라식 이름, 사탄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헬라어 디아

볼루의 원형은 ‘디아볼로스’인데 ‘비방하는, 거짓말하는’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에서 마귀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표현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사탄 또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것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에스겔(28:1~19)과 이사야서(14:3~20) 말씀이다.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을 향해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탄은 본래 그룹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겔 28:14),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겔 28:17)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겔 28:2, 사 14:13).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난다(사 14:12).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고(유 1:6),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고 한다(베후 2:4). 그것이 현재 타락한 천사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탄과 악한 영은 존재한다.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존재다. 악한 영의 실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한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하지만(벧전 5:8)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엨 6:11~12).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괴한다(약 4:7).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엨 2:9~10) 악한 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한다.



김윤식 목사
(W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는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존재!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서로 선택할 때 가장 익숙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익숙한 이미지는 대부분 부모의 이미지다. 부모의 이미지는 ‘익숙함’으로 개인에게 남아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익숙함으로 남아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인 익숙함으로 남아 회피하게 만든다. 부모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개인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결핍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한다.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배우자를 찾는다. 모두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배우자에게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나를 간섭하는 부모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간섭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을 그냥 믿어줄 것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사람들은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줄 이성과 결혼한다. 그리고 결혼 후 한동안 그 편안함이 보장되는 듯 보인다. 그런데 ‘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배우자를 통해 도전이 올 때가 있다. 나는 하기 싫은 일인데 배우자를 통해 한번

시도해 보라는 제안이 들어온다. 자신의 성향은 익숙한 환경과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동역,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것을 격려하고 요구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이 상황을 잔소리로 느끼고, 간혹 부부의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지경에 들어가는 계기를 얻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강연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과 함께 할 때 힘을 얻는 관계 지향성보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업무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나의 이러한 성향을 인정해주고, 최소한 불편하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다. 아내는 한동안 나의 안정적인 성향에 잘 맞추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아내는 다양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선호하는 나에게 강연자로 서는 것을 제안하고, 업무 지향적인 나에게 관계 지향적인 일을 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하는 상상만으로도 심한 부담감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에 따라 반사적으로 “할 수 없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며 회피했다. 하지만 아내의 기대는 남편이 자신

의 한계를 깨고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줬다. 지금도 종종 내가 정한 한계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로운 제안을 하곤 한다. 물론 배우자의 고유함과 성장 사이의 균형은 잃지 않으려 서로 노력한다.

대중 강연을 해야 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양한 정서와 반응들이 일어난다. 대부분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들이다. 반면 아내는 나와 무척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강연 기회가 주어지면 더 집중하고, 더 신나한다. 성향이 이렇게나 달라서 부부가 함께 강연하는 상황이 생기면 소소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나는 아내가 가만히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내의 마음에는 부부가 함께했을 때 일어나는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조율하고 수용해서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서로에게 맞춰 주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자신의 것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자기 지경의 확장은 결혼 생활에서 자주 일어난다. 배우자가 이런 저런 제안을 했을 때 무조건 거부하고 거절하기보다 ‘그래,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생각

하고 시도해 본다면 의외로 성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왜 이 사람을 나를 무시할까?’, ‘내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이런 제안을 할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의 영역을 확장해 보는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필자는 아내 덕분에 삶의 영역이 전보다 넓어졌다. 물론 아내도 그렇다. 부부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 새롭게 자기 지경을 확대하는 작업은 때때로 배우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배우자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함께 격려하고 성장하게 하는 존재다(엨 4:15).

나눔: 배우자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성장을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성장하게 해준 배우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해보자.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해!

2년 만에 열린 ‘장로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장로중보기도모임’이 지난 5월 6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열렸다.

장로중보기도모임 개강예배는 강찬석 장로의 대표기도, 운영위원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의 격려, 박형준 목사(장로중보기도모임 담당)의 설교, 중보기도, 홍순철 장로, 서진봉 장로의 마무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모른다”면서 “장로님들의 기도로 온누리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격려했다.

박형준 목사는 ‘성령충만한 사도들(행 5:21~26)’을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사도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누리교회 ‘장로중보기도모임’이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강했다.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서 “주의 손에 붙들려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기쁜 그릇으로 빛어지는 장로님들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항진 장로(장로중보기도모임 대표장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멈춰있던 장로중보기도모임을 2년여 만에 다시 열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장로님들의 참된 예배와 기도

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05년 1월부터 시작한 장로중보기도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진행된다. 5월 10일(화)부터 7월 21일(목)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 릴레이기도도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랑하는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을!

부모맞춤전도 행복드림 콘서트 유튜브 채널 업로드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윤행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콘서트’(이하 행복드림 콘서트)가 5월 2일(월)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번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은 총 70분이다. 사회 이무송 집사(방송인 겸 가수), 이영표 집사(전 축구 국가대표), 하정우(배우), 엄정화(배우, 가수) 축하 영상, 소프라노 홍혜란 교수 공연, 가수 윤행주 장로 간증 및 공연,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결신기도 및 축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 참여 열기가 벌써 뜨겁다. 유튜브 조회수 1,600회를 넘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부모들의 결신서가 전도본부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현재

까지(5월 6일 기준) 부모 7명이 세례받기로 결심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5월 중에 편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교회에서 보내준 초대장, 십자가 목걸이, 결신서를 꼭 챙겨야 한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나 카드, 꽃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행복드림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님을 위한 세례식이 5월 28일(토)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4부 토요 주일예배에서 열린다. 세례신청(5월 22일까지) 및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2’에서 하면 된다. 5월 28일 오후 4시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소풍도 한다.

문의: 02-3215-3214,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2’

행복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5월 화요성령집회 ‘행복의 비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대학청년부 5월 화요성령집회 ‘행복의 비밀’에서 그 답을 알 수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화요성령집회 ‘행복의 비밀’에서는 5월 3일 김승수 목사 ‘나눔의 행

복’(고후 8:1~9), 10일 최성민 목사 ‘섬김의 행복’(막 10:35~45), 24일 이서진 목사 ‘감사의 행복’(골 3:15~17), 31일 김승수 목사 ‘사랑의 행복’(요일 4:7~12)을 주제로 설교한다.

17일은 낙태 문제를 다루며 생명수호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언플랜드(Unplanned)’를 상영한다.

제10기 ‘와이무슬림?’ 추가 모집

6월 11일까지 매주 토 오전 9시

제10기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 제10기 와이무슬림?은 5월 7일(토)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제강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전체 모임 및 조별나눔은 줌(Zoom)으로 한다.

제10기 와이무슬림?에서는 김요셉 선교사(안디옥열방교회)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스테반 선교

사(WEC 중앙아 대표) ‘이슬람의 예수 이해’, 남경우 선교사(Hope) ‘한국의 이슬람’,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무슬림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무슬림에게 다가가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교재비).

문의: 010-5557-8924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5월 21일~6월 18일 매주 토 오후 4시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Zoom)으로 강의한다. 이혼한 남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5월 21일

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4만 원.

드림어게인스쿨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뭇다 한 우리들의 이야기(힐링 터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10-2539-5665

SNS청년부, 우리들학교에 470만 원 전달

고난주간 금식 헌금 기부

SNS청년부가 지난 4월 28일 ‘Give to 기부 Movement’를 했다. 고난주간 SNS청년부 지체들이 식사비, 커피값, 교통비 등을 아껴 모은 470만 원을 탈북다문화청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우리들학교’에 기부했다.

이대성 형제(SNS청년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SNS공동체 지체들

이 우리들학교를 알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재원 자매(SNS청년부 북한선교팀)는 “자원봉사 등 직접 도울 수 있는 섬김으로 우리들학교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윤동주 교장(우리들학교)은 “몹시 지쳐있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5월 24~26일 대전온누리교회 말씀사경회

대전온누리교회에서 ‘선교의 영성’을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개최한다.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오후 7시 30분 대전온누리교회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말씀사경회에서는 도육환 목사(양지온누리교회 담당)가 ‘열

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다.

대전온누리교회는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해 다음세대를 위한 ‘달려라 풍당’ 참여, 7~8월 국내외 아웃리치,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의 선교 강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 2기’ 종료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연애·결혼 코칭세미나 ‘청춘클래스 2기’(이하 청춘클래스)가 지난 4월 30일(토) 막을 내렸다. 청춘클래스에서는 지난 4월 23일(토)과 30일(토) 두 차례 오프라인

특강과 조별 만남이 이어졌다.

이번 청춘클래스에는 연애와 결혼을 두고 고민하는 청년 66명이 참여했다. 총 8커풀이 탄생했다. 청춘클래스 3기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피플퍼즐’, ‘행복의 실체와 그림자’, ‘남편 책임, 아내 책임’, ‘부부치유’, ‘성령이 춤추는 가정’, ‘가계도’, ‘아버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274-9350

‘요한문헌 & 일반서신’

성경연구학과 ‘요한문헌 & 일반서신’ 세미나가 5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요한문헌(요한복음, 요한1~3서, 요한계시록)과 신약 서신서(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권호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풍인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가 5주씩 강의한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회비는 24만 원이다.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6

